



미 연준,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 이후 보고서를 통해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 전망은 상향 조정함.

- 연준은 2011년 전망치를 6월 발표한 2.7~2.9%에서 1.6~1.7%로 하향 조정하였으며, 2012년과 2013년 전망치도 각각 3.3~3.7%, 3.5~4.2%에서 2.5~2.9%, 3.0~3.5%로 하향 조정함.
- 2011년 9월 현재 9.1%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은 2012년 말 8.6%로 하락하고(6월 전망치, 8.0%), 2013년 말에는 6.8~7.7%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며, 인플레이션은 2%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.
- 연준은 3/4분기 미국 경제 성장세가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, 주택시장 침체 지속과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 전망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강조함.

■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버냉키 연준 의장은 필요한 경우 모기지담보증권(MBS)의 추가 매입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면서 추가 부양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둠.

-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매우 느리며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언급하면서 MBS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밝힌 한편, 연준은 추가 부양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.
- 버냉키는 연준이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 왔으나 백악관의 일자리 창출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의회가 재정정책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준은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.

(New York Times 등, 11/2)